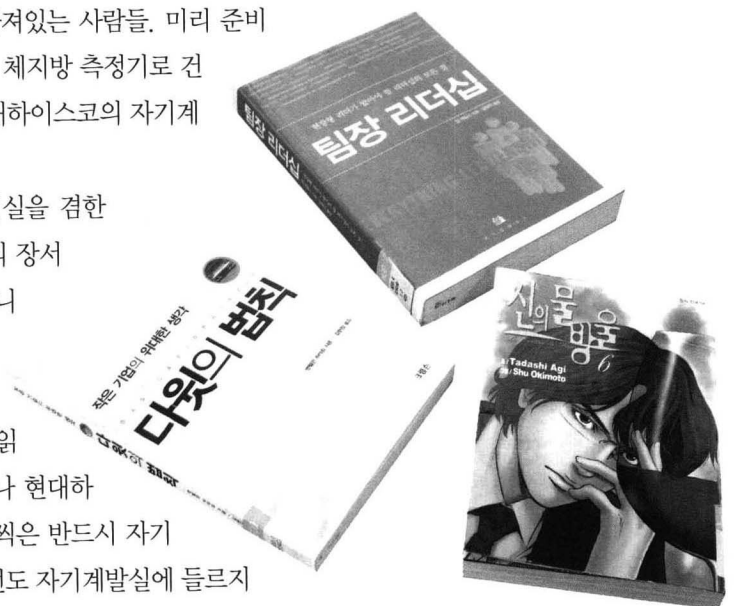


현대하이스코 자기계발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듯 좋은 책을 권한다

눈앞에 회색빛 도시가 활짝 펼쳐진다. 강박한 도시 풍경은 전망 좋은 북 카페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. 폭신한 소파에 몸을 맡은 채 독서삼매에 빠져있는 사람들. 미리 준비돼 있는 다양한 음료로 목을 축일 수 있고, 돌아가기 전에 체지방 측정기로 건강까지 체크해 볼 수 있다. 전망 좋은 북 카페는 바로 현대하이스코의 자기계발실 풍경이다.

책 읽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서실을 겸한 자기계발실을 운영 중이다. 자기계발실에는 1,300여 권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어 임직원들의 독서열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책과 함께 심을 얻어 재충전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졌다.

바쁜 업무 중에 자기계발실에서 여유를 부리며 책을 읽는다는 건 직장인으로서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. 그러나 현대하이스코에서는 가능하다. 직원들이 한 달에 두 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자기계발실을 이용하도록 활성화 장치를 마련했다. 만약 한 번도 자기계발실에 들르지





많은 직원은 팀장의 권유로 다녀와야 할 정도이다.

자동차강관 전문기업인 현대하이스코는 서울 사무소 및 당진, 순천,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. 공장의 자료실에는 기술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,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는 전문자료뿐만 아니라 경제경영서, 철학·심리, 기술 과학, 문학, 교양 등 다양한 도서를 마음껏 즐겨 읽을 수 있다.

최근 독서경영이 트렌드다. 자칫 독서가 '학습'이 아닌 '교육'으로 대체되면 조직이라는 신체는 보이지 않게 부스럼 증상이 돌아나기 마련이다. 현대하이스코가 책 읽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직원들의 자발적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. 어떻게 보면 독서경영보다는 감성경영을 중시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인다.

먼저 최고경영자인 심성재 사장은 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. 심 사장은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책을 미리 준비해서 선물을 해줄 정도이다. 《먼데이 모닝 리더십》 《팀장 리더십》 《다윗의 법칙》 《신의 물방울》 《CEO의 진정한 리더십》 등이 심 사장이 최근 읽은 책이다. 최고경영자부터 맛있는 음식을 나누듯 직원들에게 수시로 책을 권하는 모습은 현대하이스코에서는 이제 특별한 행사가 아니다.

자기계발실 담당자는 웹사이트로 운영하는 자기계발실 게시판에 신간도서 및 베스트셀러 동향을 적시에 공지해 준다. 이용실적과 대출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.

현대하이스코에서는 점차 신간 서적을 늘려가고 근무 이후에는 어학교육 등 다양한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**▶**



취재 정윤희 기자 | 사진 박신우 기자

현대하이스코의 베스트 북(2월)

| NO | 서명 | 저자 | NO | 서명 | 저자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 | 거울의 법칙 | 노구치 요시노리 | 11 | 스텝 파더 스텝 | 미야베 미유키 |
| 2 | 마시멜로 이야기 | 호아킴데포사다 | 12 | 배려 | 한상복 |
| 3 | 청소부 밥 | 토드 홉킨스 | 13 | 다윗의 법칙 | 벤델린 비데킹 |
| 4 | 신의 물방울 8 | 아기타다시 | 14 | 오뚜본의 기도 | 이사가 코타로 |
| 5 | 식객 13 | 허영만 | 15 | 시간을 파는 남자 | 페르난도 트리야스 데 베스 |
| 6 | 내 이름은 빨강 1 | 오르한 파묵 | 16 |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(2007.1.9) | 이코노미스트 |
| 7 | 밀리언 달러 티켓 | 리처드 파크 코독 | 17 | 골퍼와 백만장자 | 마크피셔 |
| 8 | 까칠한 가족 | 조반니노 과레스키 | 18 |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습관 | 한창욱 |
| 9 | 캐비닛 | 김연수 | 19 | OK 비즈니스 일본어회화 | 정형 |
| 10 | 긍정적인 말의 힘 | 할 어반 | 20 | 내 인생 최고의 멘토 | 이영권 |